

설문 조사를 통해서 본 통신 언어 사용에 대한 연구*

한 성 일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Abstract

Han, sung-il. 2003. **A Study on the Use of Online Communication Language Using Questionnaire Survey.**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11(2). The objective is to investigate chatting rooms and the current state of the use of communication language on the internet using a questionnaire survey. Important findings among the questionnair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① University students use less swears or slangs than middle or high school students. This means that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use swears or slangs as a popular language, and they do not control themselves in using them as they grow up. ② Problems in computer chatting conversation, i.e., 'destruction of our language', 'use of swears or slangs', as well as 'meaningless conversation' or 'rough conversation' were pointed out. ③ When chatters used their real names, they used much less lying, exaggeration, swearing, etc., but still did not try to speak properly observing the language standard. ④ The younger chatters are, the more they use communication language as the popular language. ⑤ The reason why chatters use communication language might be understood as a kind of 'language selection' to adapt to the communication environment as well as to a principle of economic efficiency and expression. Therefore, communication language has to be accepted as a social dialect and education as to its efficient and proper use is needed.

Keywords: questionnaire survey, communication language, chatting rooms, students' attitude, education

I. 머리말

이 연구는 설문 조사를 통해 중·고·대학생들의 컴퓨터 대화방¹⁾에서의 언어 사용 태도와 인터넷에서의 통신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신 언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음운, 표기, 어휘 차원에서 통신 언어의 특성을 고찰하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 언어 규범의 파괴와 언어 폭력의 문제점을 제시한 연구, 이러한 통신 언어의 문제점을 국어 교육적 측면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한성일, 2003: 208).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언어 규범을 파괴하는 통신 언어가 일상 언어 생활에 어느 정도까지 파급되었는지에 대해서는²⁾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통신 언어가 일상 언어에 얼마나 많이 확산되고 있는지, 통신 언어의 영향으로 일상 언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만 국어 교육 및 국어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정복, 2003: 190). 또한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이 대부분 이용자들의 연령이나, 성별, 직업, 계층 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통신 언어자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의 분석만을 가지고는 인터넷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세대별, 성별, 학력별, 직업별, 사회 계층별, 지역별 차이에 따른 통신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를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다(이정복, 2003: 190).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어 교육적 대안은 언어 규범의 확립에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어 교육의 목적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통신 언어의 언어 파괴에 대한 대책 마련 못지않게 인터넷상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한성일, 2003:231).

이 연구는 마지막에 언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설문 조사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이퍼미디어의 언어문화 교육연구’의 제2 세부과제인 ‘하이퍼텍스트의 표현 교육 연구’의 한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논문에서 다룬 것은 설문의 일부분이다. 전체 설문에서는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실태, 홈페이지·전자우편·게시판·컴퓨터 대화방에서의 언어 사용 태도 그리고 통신 언어의 사용 실태를 물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컴퓨터 대화방에서의 언어 사용 태도와 통신 언어의 사용 실태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중·고·대학생들의 통신 언어 사용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연령별, 성별에 따른 통신 언어 사용 실태의 차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학생들의 컴퓨터 대화방에서의 언어 사용 태도와 통신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컴퓨터 대화방의 표현 교육의 이론적 설계³⁾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설문조사의 결과

1) 컴퓨터 대화방은 인터넷에서 통신 화자들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채팅(Chatting)이라고 불리는 대화와 최근에 등장한 메신저 서비스(Instant Messenger Service)를 이용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컴퓨터 대화방’은 ‘채팅’과 ‘메신저를 이용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하며, 설문조사에서도 이를 구분하여 물었다.

2) 통신 언어가 일상 언어 생활에 어느 정도 파급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로는 이진성(200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진성은 대학생들의 논술 답안지에 나타난 맞춤법 오용 실태의 분석을 통해 통신 언어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분석을 통해 확인된 문법적 오류들이 반드시 통신 언어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정복(2003: 251)에서는 일기, 편지, 보고서, 일상 대화 등에 통신 언어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3) 현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는 ‘하이퍼텍스트 표현 교육’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게시판·대화방·전자우편 등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특히 표현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국어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다.

가 실제 언어 생활을 정확히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이 연구가 갖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필자를 비롯한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원들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설문조사는 2003년 5월 12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 대상 학교는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6개교, 대학교 5개교로, 중학생 206명(남 108, 여 98), 고등학생 229명(남 119, 여 110), 대학생 162명(남 80, 여 82) 총 597명이 설문에 참여했고, 남녀의 비율은 51.4% : 48.6%이다.

II. 설문 조사 내용 분석 결과

1. 컴퓨터 대화방의 이용 실태 및 표현 양상

컴퓨터 대화방과 관련해서 이용 시간과 목적 등의 사용 실태와 언어 표현의 특징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컴퓨터 대화방 이용 시간 및 이용 목적

(1) 컴퓨터 대화방 이용 시간

컴퓨터 대화방 이용 시간은 ‘채팅’과 ‘메신저’로 구분해서 물었다.⁴⁾ 먼저 하루 평균 채팅을 하는 시간을 보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합계 39.9%가 대화방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 미만 39.6%, 1-2시간 13%, 2-3시간 4%, 3시간 초과 3.5%로 조사되었다. 결국 이용 학생의 경우도 전체 학생의 39.6%, 즉 이용 학생의 3분의 2가 1시간 미만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다음의 메신저⁵⁾ 이용실태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0시간	1시간 미만	1-2시간	2-3시간	3시간 초과	합계	
학교	중학교	빈도	26	62	57	19	37	201
		%	12.9%	30.8%	28.4%	9.5%	18.4%	100.0%
	고등학교	빈도	17	65	61	41	46	230
		%	7.4%	28.3%	26.5%	17.8%	20.0%	100.0%
	대학교	빈도	10	48	48	32	22	160
		%	6.3%	30.0%	30.0%	20.0%	13.8%	100.0%
합계	빈도	53	175	166	92	105	591	
	%	9.0%	29.6%	28.1%	15.6%	17.8%	100.0%	

<표 1> 하루 평균 메신저 이용 시간

	Value	df	Asymp. Sig. (2-sided)
피어슨 카이스퀘어	15.897(a)	8	.044

카이스퀘어 검사

하루 평균 메신저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시간 이상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60%에 달하고 있다. 특히 3시간 이상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도 전체의 17.8%에 달해 학생들이 채팅 대신에 메신저를 이용한 컴퓨터 의사소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채팅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존의 채팅은 익명성으로 인해 욕설이 난무하고, 허위 과장이 만연되어 있다. 더구나 음란 채팅 등 건전한 대화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팅을 통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대화방을 전전하다가 불쾌한 감정만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전에 등록된 친구들과 건전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메신저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특히 메신저는 인터넷을 통해 다른 일을 하면서 화면 한쪽의 창을 통해 대화할 수 있다는 매력을 갖고 있다. 굳이

4) 컴퓨터 대화방을 ‘채팅’과 ‘메신저’로 구분한 것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채팅’과 실명을 바탕으로 하는 ‘메신저’의 대화는 그 언어 사용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들에게 이 점을 주지시켰다.

5) 메신저란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Instant Messenger Service)를 일컫는 것으로 msn 메신저, daum 메신저, 버디버디(buddy buddy)처럼 모니터의 조그만 창을 통해 자신이 미리 등록해 놓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파일을 전송할 수 있으며, 실시간 정보 알림, 인터넷 쇼핑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대화방에 접속할 필요가 없이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 상태라면 대화 쌍방이 언제든지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⁶⁾를 보면, 피어슨(Pearson)의 카이스퀘어값은 15.897이고 자유도는 8일 때 p값은 .044로 나타나 유의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연령 차이와 메신저 이용 시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메신저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비율에서는 중학생(12.9%)이 고등학생(7.4%)이나 대학생(6.3%)에 비해 다소 높았고, 2-3시간 정도 이용한다는 학생의 비율은 대학생(20%)이 고등학생(17.8%)이나 중학생(9.5%)보다 높았다.

이는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컴퓨터 대화방 이용 목적

대화방 이용 목적에 대해서는 잡담이나 시간 보내기가 전체의 5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친구 사귀기 21.6%, 정보 교환 13.5%, 취미 활동 6.3%로 나타났다. 그 밖의 기타 의견으로 '심심해서', '회의를 위해서' 등이 있었다.

잡담, 취미활동 등의 무의미한 시간 보내기가 대화방 이용 목적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학생들이 정보 교환과 같은 의미 있는 의사소통 보다는 비생산적인 의사소통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절반 이상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대화방을 이용하는 것은 대화방을 현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분출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대화방의 대화가 하나의 놀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현실적인 모습을 단순히 미화시키는 수준을 넘어 성별이나 연령을 바꾸어 보기도 한다. 이러한 역할이나 모습의 변신은 마치 어린 아이가 소꿉 장난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상상에 의한 자기 만족과도 유사한 것이다(민현식 외, 2001: 69-70).

2) 컴퓨터 대화방의 언어 표현 양상

다음은 컴퓨터 대화방에서의 언어 사용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이 경우도 '채팅'과 '메신저'를 구분해서 물었다. 구체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의 사용', '감정기호 등 시각적 표현의 사용', '대화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물었다.

(1)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양상

6) <표1> 아래쪽에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를 볼 수 있다. 맨 오른쪽에 있는 P값이 0.05 이하일 경우에 이를 유의 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표1>의 경우 P값이 0.044이므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연령 차이와 메신저 이용 시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P값이 0.05 이상인 경우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P값이 0.05인 경우에만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많이 사용한다	매우 많이 사용한다	합계	
학교	중학교	빈도	8	31	54	25	14	132
		%	6.1%	23.5%	40.9%	18.9%	10.6%	100.0%
	고등학교	빈도	3	31	52	34	10	130
		%	2.3%	23.8%	40.0%	26.2%	7.7%	100.0%
	대학교	빈도	10	40	35	8		93
		%	10.8%	43.0%	37.6%	8.6%		100.0%
합계	빈도	21	102	141	67	24	355	
	%	5.9%	28.7%	39.7%	18.9%	6.8%	100.0%	

<표 2> 채팅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정도

	Value	df	Asymp. Sig. (2-sided)
피어슨 카이스퀘어	33.831	8	.000

카이스퀘어 검사

욕설이나 비속어를 많이 또는 매우 많이 사용한다는 비율이 중학생 29.5%, 고등학생 33.8%, 대학생 8.6%로 중·고등학생에 비해 대학생들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훨씬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욕설이나 비속어가 청소년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다가 성인이 되면서 사용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⁷⁾와 매우 일치한다.

그런데 메신저 대화에서도 욕설이나 비속어의 사용 정도가 채팅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메신저의 경우 욕설이나 비속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6.3%,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31.8%, ‘보통이다’ 38%, ‘많이 사용한다’ 17.3%, ‘매우 많이 사용한다’ 6.5% 로 메신저를 통한 대화에서도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채팅과 별 차이가 없다.

이는 채팅에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결과이다. 상대방의 신분을 잘 알고 대화하는 메신저에서도 욕설이나 비속어의 사용 정도가 줄지 않는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하나의 유행어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욕설이나 비속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고, 그러한 욕설이나 비속어를 들었을 경우에도 커다란 불쾌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이 여러 연구 결과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메신저 대화에서도 채팅과 마찬가지로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욕설이나 비속어를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욕설이나 비속어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가 덜 사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⁸⁾인데, 채팅과 메신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익명성’이라는 채팅의 속성과 친한 친구와의 사적인 대화가 주류를 이루는 메신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7) 이정복 외(2000: 142)에 의하면 대화방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비속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20대 이상의 경우에는 세대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비율을 보면 10대 48.8%, 20대 16.3%, 30대 17.5%, 40대 이상 17.5%이다.

8) 이정복 외(2000: 147)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성(59.4%)이 여성(40.6%)에 비해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감정기호 등 시각적 표현의 사용 양상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많이 사용한다	매우 많이 사용한다	합계
학교	중학교	빈도	3	14	22	57	35	131
		%	2.3%	10.7%	16.8%	43.5%	26.7%	100.0%
	고등학교	빈도	3	11	30	48	39	131
		%	2.3%	8.4%	22.9%	36.6%	29.8%	100.0%
	대학교	빈도	1	7	30	47	7	92
		%	1.1%	7.6%	32.6%	51.1%	7.6%	100.0%
합계		빈도	7	32	82	152	81	354
		%	2.0%	9.0%	23.2%	42.9%	22.9%	100.0%

<표 3> 채팅할 때

감정기호 등 시각적 표현의 사용 정도

	Value	df	Asymp. Sig. (2-sided)
피어슨 카이스퀘어	22.583	8	.004

카이스퀘어 검사

채팅의 경우 시각적 표현을 많이 또는 매우 많이 사용한다는 응답이 중학생 70.2%, 고등학생 66.4%로 나타난 반면 대학생의 경우는 58.8%로 중·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층이 낮은 중·고등학생들일수록 감정기호나 시각적 표현을 재미 삼아 사용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층이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말들을 많이 만들어 쓴다, 이는 새로움을 찾아 또는 자기들끼리의 또래로서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끝없이 새로 유행어를 만들어 쓰는 것이다(이익섭, 1994: 139-140). 감정기호나 시각적 표현들도 청소년들에게는 하나의 유행어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대화 내용의 진실성

채팅을 할 때 대화 내용의 진실성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6.8%가 대부분 진실하다 또는 모두 진실하다고 답했다. 반면 ‘전혀 진실하지 않다’ 1.4%, ‘대부분 진실하지 않다’ 6.5%, ‘보통이다’ 35.3%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에 제시하는 메신저 대화 내용의 진실성 정도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전혀 진실하 지 않다	대부분 진실하 지 않다	보통이다	대부분 진실하다	모두 진실하다	합계	
학교	중학교	빈도	10	56	97	14	177	
		%		5.6%	31.6%	54.8%	7.9%	100.0%
	고등학교	빈도	3	7	63	110	28	211
		%	1.4%	3.3%	29.9%	52.1%	13.3%	100.0%
	대학교	빈도		2	27	101	19	149
		%		1.3%	18.1%	67.8%	12.8%	100.0%
합계	빈도	3	19	146	308	61	537	
	%	.6%	3.5%	27.2%	57.4%	11.4%	100.0%	

<표 4> 메신저 대화 내용의 진실성 정도

	Value	df	Asymp. Sig. (2-sided)
피어슨 카이스퀘어	22.091	8	.005

카이스퀘어 검사

메신저 대화에서는 채팅(56.8%)에 비해 대부분 진실하다는 이상의 답변 비율이 68.8%로 10%이상 높았다. 이는 채팅이 익명성을 지키면서 즉흥적으로 만난 상대와의 대화인 반면에 메신저는 잘 알고 있는 상대와의 대화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연령 차이와 메신저 대화의 진실성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대화 내용이 대부분 진실하다는 이상의 답변이 중학생 62.7%, 고등학생 65.4%에 비해 대학생은 80.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메신저를 이용한 의사소통에서 보다 진솔한 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컴퓨터 대화방 대화의 문제

학생들이 느끼는 컴퓨터 대화방 대화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무의미 한 대화 가 많다	대화의 진행 원 활하지 못 하다	우리말 의 파괴 가 심하 다	욕설이나 비속어 반 말투의 말 이 많다	허위, 과장이 많다.	기타	합계	
학교	중학교	빈도	23	4	28	53	13	7	128
		%	18.0%	3.1%	21.9%	41.4%	10.2%	5.5%	100.0%
	고등학교	빈도	33	9	22	42	19	2	127
		%	26.0%	7.1%	17.3%	33.1%	15.0%	1.6%	100.0%
	대학교	빈도	34	13	26	11	6	1	91
		%	37.4%	14.3%	28.6%	12.1%	6.6%	1.1%	100.0%
합계	빈도	90	26	76	106	38	10	346	
	%	26.0%	7.5%	22.0%	30.6%	11.0%	2.9%	100.0%	

<표 5> 대화방 대화의 문제점

	Value	df	Asymp. Sig. (2-sided)
피어슨 카이스퀘어	43.143	10	.000

카이스퀘어 검사

대화방 대화의 문제점으로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욕설이나 비속어, 반말 투의 말이 많음’(30.6%)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무의미한 대화가 많다’(26%), ‘우리말의 파괴가 심하다’(22%), ‘허위, 과장이 많다’(11%), ‘대화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다’(7.5%) 등의 순이었다. 또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연령 차이와 대화방 대화의 문제점 인식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의 경우 무의미한 대화나, 원활하지 못한 대화 진행 등 대화의 내용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반면 고등학생, 중학생으로 내려갈수록 욕설이나 비속어, 반말투를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무의미한 대화가 많다’의 경우 대학생 37.4%, 고등학생 26.7%, 중학생, 18% 순인데 반해, ‘욕설이나 비속어, 반말 투의 말이 많다’의 경우는 중학생 41.4%, 고등학생 33.1%, 대학생 12.1%의 순이었다.

2. 컴퓨터 통신 언어⁹⁾의 사용 실태

컴퓨터 통신 언어(이하 통신 언어)와 관련해서는 실명과 익명 사용의 여부, 통신 언어 사용의 정도와 그 이유, 통신 언어를 실생활에 사용한 경험과 그 이유, 통신 언어에 대한 견해 등을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의 통신 언어는 박동근(2001)에서 정의한 좁은 의미의 통신 언어¹⁰⁾를 뜻한다.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들에게 이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

1) 컴퓨터 통신상에서의 실명 사용의 양상

컴퓨터 통신상에서 실명을 사용하는 지, 아니면 익명을 사용하는 지를 묻고 그에 따른 이유를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실명을 사용할 때의 언어 사용 방식의 특성을 조사했다.

먼저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을 이용할 때 실명과 익명 중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라는 질문에 72.8%가 익명을, 27.2%가 실명을 사용한다고 답변했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 컴퓨터 통신에서 익명 사용자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실명을 사용하는 이유를 보면 ‘게시판 자체가 실명을 요구하기 때문에’가 3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실명을 사용하는 것이 네티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22.5%, ‘나의 글이나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가 20.9%, ‘나 자신을 당당히 밝히고 싶기 때문에’가 13.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별 이유 없이’라는 의견이 많

9) 여기서 컴퓨터 통신 언어를 따로 설정한 이유는 컴퓨터 통신 언어가 일반적으로 대화방 언어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게시판, 전자 우편, 대화방 등 컴퓨터 통신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을 총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는 순수하게 컴퓨터 대화방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었고, 여기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컴퓨터 통신 언어 사용을 물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통신 언어의 사용 실태는 컴퓨터 대화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0) 박동근(2001: 4)에서는 의사소통을 위해 통신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자언어를 ‘넓은 의미의 통신 언어’로, 의사소통을 위해 통신상에서 사용되는 문자언어로, 일반 언어의 음운 또는 형태적 변이형이나 통신상에서 만들어진 새말, 통신상에서 새롭게 의미가 부여된 말, 또는 통신상에서 사용되는 독특한 문체나 어법, 의사 전달을 위해 사용된 특수 기호를 포괄하는 것을 ‘좁은 의미의 통신 언어’의 규정하고 있다.

았다.

그런데 실명을 사용하는 이유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성별에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게시판 자체가 실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당당히 밝히고 싶기 때문에	나의 글이나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실명을 사용하는 것이 네티켓(통신예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타	합계
성별	남자	빈도 42 % 25.6%	빈도 29 % 17.7%	빈도 40 % 24.4%	빈도 38 % 23.2%	빈도 15 % 9.1%	빈도 164 % 100.0%
	여자	빈도 57 % 41.6%	빈도 12 % 8.8%	빈도 23 % 16.8%	빈도 30 % 21.9%	빈도 15 % 10.9%	빈도 137 % 100.0%
합계		빈도 99 % 32.9%	빈도 41 % 13.6%	빈도 63 % 20.9%	빈도 68 % 22.6%	빈도 30 % 10.0%	빈도 301 % 100.0%

<표 6> 성별에 따른 실명 사용의 이유

	Value	df	Asymp. Sig. (2-sided)
피어슨 카이스퀘어	12.529	4	.014

카이스퀘어 검사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를 보면 성별과 실명 사용의 이유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여자의 경우 ‘게시판 자체가 실명을 요구하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41.6%로 남자 25.6에 비해 훨씬 많았다. 반면 ‘나 자신을 당당히 밝히고 싶기 때문에’라는 답변은 8.8%로 남자 17.7%에 비해 훨씬 적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실명 사용에 있어 상당히 수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여자가 남자에 비해 실명을 밝히는 것을 꺼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익명을 사용할 가능성이 여자가 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는 남자와 여자가 구별된 성 역할(gender roles)을 가르치고 강화시키는 문화적 규범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사회화되었기 때문이다(사회언어학, 2002: 242)라는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어려웠고, 이에 따라 여성은 자신의 입장 표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나아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기피하는 경향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이나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가 33.1%, ‘개인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어서’가 32.7%, ‘게시판 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가 14%, ‘새로운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서’가 14%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실명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라는 의견이 많았다. 결국 익명 사용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 신분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익명을 사용할 때와 다른 실명 사용시의 언어 사용 방식의 특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실명을 사용할 때는 익명을 사용할 때와는 달리 우선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을 자제한다’는 답변이 28.6%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쓰지 않는다’는 18.9%, ‘공손한 표현을 사용한다’는 17.7% 나타났다. 이는 실명을 사용하게 되면, 욕설이나 비속어, 반말 투의 표현이 많이 자제되고, 허위·과장 표현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속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지 않는 경우가 있다’가 20.4%로 나타나 실명 사용이 자신

의 의사를 솔직히 표현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실명을 사용하면 ‘언어 규범에 맞게 쓰려고 노력한다’라는 답변은 9.4% 정도라는 것이다. 즉 현재의 언어 파괴 문제는 실명 사용의 정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기타 의견으로는 실명을 사용할 때와 익명을 사용할 때에 ‘별 차이가 없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2) 통신 언어 사용 정도와 그 이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많이 사용한다	매우 많이 사용한다	합계	
학교	중학교	빈도	6	24	48	62	60	200
		%	3.0%	12.0%	24.0%	31.0%	30.0%	100.0%
	고등학교	빈도	10	36	59	81	44	230
		%	4.3%	15.7%	25.7%	35.2%	19.1%	100.0%
	대학교	빈도	8	38	48	57	11	162
		%	4.9%	23.5%	29.6%	35.2%	6.8%	100.0%
합계	빈도	24	98	155	200	115	592	
	%	4.1%	16.6%	26.2%	33.8%	19.4%	100.0%	

<표 7> 통신 언어 사용 정도

	Value	df	Asymp. Sig. (2-sided)
피어슨 카이스퀘어	34.845	8	.000

카이스퀘어 검사

전체 응답자 중 53.2%가 통신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를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연령 차이와 통신 언어의 사용 빈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매우 많이 사용한다’는 답변을 보면 중학생 30%, 고등학생 19.1%, 대학생 6.8%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통신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학교 이전부터 통신 언어 사용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이러한 결과는 통신 언어의 사용이 청소년기의 유행적인 언어 관습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즉 대학생 이후의 성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통신 언어 사용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각각의 이유를 조사 분석하였다.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타자를 빨리 치기 위해서’가 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가 20.1%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통신 언어의 사용이 경제성의 원리와 표현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통신상에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가 19%, ‘대화 구성원들과의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가 15.7%, ‘통신 언어 구사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4.7%로 나타났다. 이들 세 항목의 이유는 ‘언어 선택’(language choice)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늘 고정되어 있는 어떤 한 가지 말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적절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언어 선택’이라고 하는데, 코드 바꾸기(code-switching)와 코드

뒤섞기(code-mixing)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일상 생활에서의 언어와 통신상의 언어가 다르다면 이는 일종의 코드 바꾸기에 해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언어 생활에서는 언어 규범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다가도 통신상에서는 통신상에서 통용되는 통신 언어들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코드 바꾸기는 장소나 대화 상대자에 의한, 다시 말해 ‘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일반적 연구 결과이다. 이때, ‘자리’는 언어 선택의 외적인 조건이고 화자의 심리 상태가 언어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적응(accomodation)이다. 사람들은 대개 외적으로 있기보다는 어디에 끼이기를 원한다(이익섭, 1994: 305-308).

따라서 일상 언어 생활에서 언어 규범에 맞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컴퓨터 통신이라는 ‘자리’에서는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 적응을 하게 되고, 이것이 통신 언어 사용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표기법이나 띄어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라는 답변은 4.0%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문법 지식이 부족해서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기타 의견으로는 ‘재미있어서’, ‘습관이 되어서’, ‘귀찮아서’ 등이 많았다.

		언어 규범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통신 언어를 잘 몰라서	통신 언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진부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기타	합계	
학교	중학교	빈도	38	26	19	25	21	129
		%	29.5%	20.2%	14.7%	19.4%	16.3%	100.0%
	고등학교	빈도	39	9	33	39	11	131
		%	29.8%	6.9%	25.2%	29.8%	8.4%	100.0%
	대학교	빈도	10	4	30	18	5	67
		%	14.9%	6.0%	44.8%	26.9%	7.5%	100.0%
합계	빈도	87	39	82	82	37	327	
	%	26.6%	11.9%	25.1%	25.1%	11.3%	100.0%	

<표 8> 통신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Value	df	Asymp. Sig. (2-sided)
피어슨 카이스퀘어	39.906	8	.000

카이스퀘어 검사

통신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중·고등학생의 경우 ‘언어 규범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는 학교 교육에서 통신 언어의 문제를 자주 접하면서 학생들 사이에 언어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를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연령 차이와 통신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중학생의 경우 ‘통신 언어를 잘 몰라서’라는 답변이 20.2%로 고등학생 6.9%, 대학생 6.0%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 반면에 대학생의 경우는 ‘통신 언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가 4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진부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가 26.9로 그 뒤를 이었다. ‘통신 언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라는 답변은 고등학생 25.2%, 중학생 14.7%로 연령이 낮을수록 통신 언

어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일상 생활에서의 통신 언어 사용 양상과 이유

통신 언어의 일상 언어로의 전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통신 언어의 일상 생활에서의 사용 여부와 그 이유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있다	없다	합계	
성별	남자	빈도	233	71	304
		%	76.6%	23.4%	100.0%
	여자	빈도	250	39	289
		%	86.5%	13.5%	100.0%
합계		빈도	483	110	593
		%	81.5%	18.5%	100.0%

<표 9> 통신 언어를 일상 생활에 사용해 본 경험 유무

	Value	df	Asymp. Sig. (2-sided)
피어슨 카이스퀘어	9.534	1	.002

카이스퀘어 검사

“통신 언어를 일상생활에 사용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81.5%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우리 언어 생활이 통신 언어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음을 뜻한다.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를 보면 성별과 통신 언어를 일상 생활에 사용해 본 경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일상 생활에서 통신 언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¹¹⁾

다음의 일상 생활의 어느 경우에 통신 언어를 사용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한 이유를 잘 보여 준다.

11) 송옥란(2002)에 의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자주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였으며 통신 언어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 규범 및 언어 관습의 제약에서 일탈하여 의사소통하려는 요구를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본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합 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빈도	105	163	137	405
	%	33.1%	47.4%	53.7%	44.2 %
일기	빈도	15	14	2	31
	%	4.7%	4.1%	0.8%	3.4%
편지	빈도	63	61	43	167
	%	19.9%	17.7%	16.9%	18.2%
시험지나 일반 과제물	빈도	1	4	0	5
	%	0.3%	1.2%	0%	0.5%
친구들과의 대화	빈도	109	92	65	266
	%	34.4%	26.7%	25.5%	29%
기타	빈도	24	10	8	42
	%	7.6%	2.9%	3.1%	4.6%
합 계	빈도	317	344	255	916
	%	34.6%	37.6%	27.8%	100%

<표 10> 통신 언어를 일상 생활에 사용한 경우

일상 생활의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에서 통신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휴대 전화를 이용한 의사소통도 하나의 통신이라고 볼 때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에서 통신 언어를 사용한다는 비율이 대학생 53.7%, 고등학생, 47.4%. 중학생 33.1%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문자 메시지를 제외한다면 ‘친구들과의 대화’가 2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중학생 34.4%, 고등학생 26.7%, 대학생 25.5%로 나이가 어릴수록 대화에서 통신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나이가 어린 중학생들일수록 통신 언어를 하나의 유행어처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구들과의 대화’ 다음으로 ‘편지’가 18.2%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전자 우편에서 통신 언어를 사용하던 습관이 일반 편지를 쓸 때도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편지에서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통신 언어의 사용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친구들과의 대화’, ‘편지’가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앞서 <표 9>의 결과인 여자가 남자에 비해 통신 언어를 일상 생활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말을 더 많이 하고, 청소년기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편지를 더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

		많이 사용해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재미있어서	간편해서	기타	합계	
학교	중학교	빈도	61	20	49	60	6	196
		%	31.1%	10.2%	25.0%	30.6%	3.1%	100.0%
	고등학교	빈도	93	10	38	63	1	205
		%	45.4%	4.9%	18.5%	30.7%	.5%	100.0%
	대학교	빈도	54	10	25	49	4	142
		%	38.0%	7.0%	17.6%	34.5%	2.8%	100.0%
합계	빈도	208	40	112	172	11	543	
	%	38.3%	7.4%	20.6%	31.7%	2.0%	100.0%	

<표 11> 일상 생활에서의 통신 언어 사용 이유

	Value	df	Asymp. Sig. (2-sided)
피어슨 카이스퀘어	16.433	8	.037

카이스퀘어 검사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해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38.3%로 가장 많았고, ‘간편해서’ 31.7%, ‘재미있어서’ 20.6%,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7.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그런데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를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연령 차이와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중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10.2%), ‘재미있어서’(25%)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들의 경우 통신 언어를 하나의 유행어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대화방에서의 언어 사용 태도와 통신 언어 사용 실태를 묻은 설문 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익명성이 보장된 기존의 채팅보다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친구들과 대화하는 데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메신저를 이용한 대화 양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욕설이나 비속어를 훨씬 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들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하나의 유행어처럼 사용하고 있고,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욕설이나 비속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컴퓨터 대화방 대화의 문제점으로 ‘우리말 파괴’, ‘욕설이나 비속어의 사용’ 못지 않게 ‘무의미한 대화’나 ‘원활하지 못한 대화 진행’ 등을 지적했다. 넷째, 통신상에서 실명을 사용하면 허위, 과장, 욕설 등은 많이 줄어들지만 언어 규범에 맞게 쓰려는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령이 낮을수록 통신 언어를 유행어처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여섯째,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경제성과 표현성의 원리 못지 않게 통신 환경에 적응하려는 일종의 ‘언어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규범 파괴 문제에 대한 물음¹²⁾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넘는 52.2%가 ‘통신상에서만 한정해서 사용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학생

들이 통신 언어를 하나의 사회 방언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컴퓨터 대화방에서의 언어 사용 태도와 통신 언어 사용 실태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연구가 갖는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컴퓨터 대화방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국어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특히 국어 교육 과정의 경우 언어규범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컴퓨터 대화방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 기술에도 교육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현재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가까운 시일에 연구 성과를 학계에 발표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권순희 (2001). “컴퓨터 통신 대화의 언어적 특성 고찰.” 국어교육 105, 14-169. 한국 국어교육 연구회.
- 권연진 (1998). “컴퓨터 통신어의 언어학적 특징.” 언어과학 5(2), 257-271. 동남언어학회.
- 권혜련 (2001). 컴퓨터 통신 언어의 언어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진우 (1994). 언어와 의사소통-수사학과 화용론의 만남. 서울: 한신문화사.
- 노형남 (2000). “한국어 채팅 표현에 관한 연구.” 사회언어학 8(2), 107-137. 한국사회언어학회.
- 민현식 외 (2001). 정보통신 언어의 순화 및 정보윤리교육의 학교교육 활용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박동근 (2002). “통신 언어의 유형에 따른 언어학적 기능 연구.” 한말연구 10, 2-21. 한말연구학회.
- 박영순 (2001). 한국어의 사회언어학. 서울: 한국문화사.
- 박희로 (2002). 컴퓨터 통신 언어 교육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경숙 (2002a). “전자대화에서의 전체 분석-인터넷 채팅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12, 261-29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송경숙 (2002b). “한국어와 영어 인터넷 채팅에서의 프레임(frame) 분석.” 텍스트언어학 13, 73-105.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송옥란 (2002). 청소년의 컴퓨터 통신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고찰.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종희 (2002). “중학생 PC통신 언어의 실태 분석.” 국어교육연구 34, 107-139. 국어교육학회.
- 안정근 (2000). “네트워크에 나타나는 언어의 담화분석.” 사회언어학 8(2), 139-168. 한국사회언어학회.
- 오은영 (2000). PC통신 어휘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석주 외 (2002). 대중 매체와 언어. 서울: 역락.
- 이선희 (2000). 컴퓨터 대화방 언어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익섭 (1994). 사회언어학. 서울: 민음사.
- 이정복 (2000a). “컴퓨터 통신 속의 지역 방언.” 리의도(편) 우리 말글과 문학의 새로운 지평, 87-118. 서울: 역락.
- 이정복 (2000b). “통신 언어로서의 호칭어 ‘님’에 대한 분석.” 사회언어학 8(2), 193-221. 한국사회언어학회.
- 이정복 (2001). “10대 청소년들의 통신 언어 사용과 문제점.” 한글사랑 15, 68-106. 서울: 한글사.
- 이정복 (2002). “통신 언어 문장종결법의 사회언어학.” 사회언어학 10(2), 109-135. 한국사회언어학회.
- 이정복 (2003). 인터넷 통신 언어의 이해. 서울: 월인.
- 이정복 외 (2000). 바람직한 통신 언어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관광부.
- 이종욱 (2002). 통신 언어의 어휘 오용 실태 연구. 여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2) 언어규범 파괴 문제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넘는 52.2%가 ‘통신상에서만 한 정해서 사용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고, 36.6%는 ‘언어규범 파괴가 심각하므로 언어규범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언어는 어차피 변하기 마련이므로 통신에서든 실생활에서든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답변은 8.6%였다.

- 이진성 (2001). “한국대학생들의 맞춤법 오용 실태-통신어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9(2), 119-141. 한국 사회언어학회.
- 임규홍 (2000). “컴퓨터 통신언어에 대하여.” 배달말 27, 23-59. 배달말학회.
- 임철성 (2000). “컴퓨터 공개 대화방 대화의 매체 언어적 성격과 대화 양식 고찰.” 텍스트언어학 9, 145-168.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전병용 (2002). “통신언어의 음운론적 특성에 대한 연구-대화방 언어를 중심으로.” 한국어어 문화 21, 251-274. 한국어어문화학회.
- 전은진 (2001). 컴퓨터 통신 대화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명규 (2001). 컴퓨터 통신 언어 지도 방안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무사 (2002). 국어 통신 언어 교육의 방향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오현 외 (2002). 컴퓨터 통신언어 사전. 서울: 역락.
- 천세옥 (2003). 통신 언어 사용 실태 분석을 통한 국어 순화 방안.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사회언어학회 엮음 (2002). 문화와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서울: 한국문화사.
- 한성일 (2003). “컴퓨터 대화방의 표현 양상과 국어 교육적 방안.” 국어교육연구 11, 207-245. 서울대학교 국어 교육연구소.
- 홍경하 (2002). 통신언어 사용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Holmes, J. (1992).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London: Longman.
- Spolsky, B. (1998). *Sociolingu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김재원 외 옮김 (2001). 사회언어학. 서울: 박이정.

한성일

hmy805@hanmail.net

접수: 2003. 09. 14

수정본 접수: 2003. 10. 25

게재결정: 2003. 12. 05